

# 미시나 쇼에(三品彰英)의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에 관한 一考\*

박 미 경\*\*

(e-mail : bbmcpark@hanmail.net)

##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3.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의 구조와 ‘하권’의 존재 |
| 2. 미시나의 연구에 대한 검토와 문제의 소재 | 4. 미시나의 텍스트와 ‘고증’의 의미             |
| 3. 미시나 쇼에와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 5. 나가기                            |
| 3.1. 조선 연구의 출발점           |                                   |

키워드 : 三品彰英(Mishina Shoeki), 日本書紀(Nihonshyoki), 韓日關係(Korea-Japan Relations), 植民史觀(Colonial history), 韓日古代史(Ancient history of Korea and Japan)

## 1. 들어가기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한 조선 연구는 1902년부터 한국연구회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조선고서간행회(1908) 조선연구회(1911) 자유토구사(1920) 등의 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식민통치의 기초를 세우려는 총독부의 지원 하에 추진된 것이었다.<sup>1)</sup> 조선사 연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19세기 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의 조선연구는 대부분 일본인 역사가들의 손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일본인 학자들을 살펴보면 먼저 메이지시대 조선사 연구의 개척자 하야시 다이스케(林 泰輔;1854-1922)<sup>2)</sup>를 비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 S1A5A2A01026445)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일본문학

1) 최혜주(2005)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권

2) 하야시 다이스케의 저서 중, 한국사 관련 주요 저서에는 『朝鮮史』(1892), 『朝鮮近世史』(1901), 『朝鮮通史』(1912) 등이 있다.

못하여 역사, 민속, 신화,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면서 주로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조선사를 연구했던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 庫吉;1865-1942)<sup>3)</sup>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지냈을 뿐 아니라 조선사편수회에서도 활동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사학의 기초를 마련한 이마니시 류(今西 竜;1875-1932)<sup>4)</sup>를 비롯하여 조선총독부의 의뢰를 받아 만철조사부 역사조사부에서 만몽·조선의 고대사 연구에 열중한 이케우치 히로시(池内 宏; 1878-1952)<sup>5)</sup> 등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신화를 중심으로 조선사를 연구했던 미시나 쇼에(三品 彰英;1902-1971)<sup>6)</sup>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이들의 연구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들이 활동한 시기가 한국의 근대적 학문의 출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 학문 형성기에 드리운 이들의 영향과 그림자를 부인할 수 없다<sup>7)</sup>.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미시나는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이자 신화학자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의 연구 성과는 여전히 국내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에서 미시나는 일본신화의 신화학적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연구자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종래 한일 양국 신화에 관한 비교 연구 분야에서의 그의 업적이 주목을 받아 왔다.<sup>8)</sup> 그런 연유로 그의 학문

3) 대부분의 저서는 『白鳥庫吉全集』(全10卷)(岩波書店, 1969年-1971年)으로 간행되었는데 1·2卷: 日本上代史研究, 3卷: 朝鮮史研究, 4·5卷: 塞外民族史研究, 6·7卷: 西域史研究, 8·9卷: アジア史論 등이 수록되어 있다.

4) 주요 저서에 『新羅史研究』(1933), 『百濟史研究』(1934), 『朝鮮史の槩』(1935), 『朝鮮古史の研究』(1937) 등이 있다.

5) 주요 저서는 『日本上代史の一研究』(近藤書店, 1947年), 『元寇の新研究』(東洋文庫, 1931年), 『滿鮮史研究』(全5卷, 吉川弘文館, 1951年-1979年) 등이다.

6) 『建国神話論考』(目黒書店, 1937年), 『朝鮮史概説』(弘文堂書房, 1940年), 『新羅花郎の研究』(三省堂, 1943年), 『日鮮神話伝説の研究』(柳原書店, 1943年), 『神話と文化領域』(大八洲出版, 1948年) 등의 저서가 있다.

7) 이와 관련한 대표 선행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에릭 홉스봄외 지음, 박지향, 장문석 옮김(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오구마에이지 지음, 조현실 옮김(2003),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하루오 시라네, 스즈키 토미 엮음, 왕숙여 옮김(2002),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品田悦一(2001), 『万葉集の発明—国民国家と文化装置としての古典—』新曜社, 이성시 지음, 박경희 옮김(2001), 『만들어진 고대』 삼인 등.

8) 大林太良(1972), 「日本神話の研究史」, 『国文学解釈と鑑賞』460号, 大林太良(1971), 「松村神話学の展開—ことにその日本神話研究について」, 『文学』39卷 11号, 松村一男(1997) 「比較神話研究の方法」, 大林太良·吉田敦彦 『日本神話事典』大和書房 등.

의 ‘정치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 다행히 90년대에 들어서 내셔널리즘론,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 붐을 이루어 근대 일본에서의 ‘知’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 기존의 사항들의 자의성과 거기에 숨겨져 있던 정치성을 폭로하는 시도가 사상사 분야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미시나의 연구에 대한 엇갈린 평가이다. 한국에서는 해방 후 주로 신화 연구자에 의해 그의 연구 성과가 자주 인용되어 왔으며, 서구 이론을 도입한 참신한 문제설정과 방법론을 활용한 미시나의 연구 덕에 신화 자료의 폭이 확장되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한국의 신화 이해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sup>9)</sup>를 해왔다.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 이른바 ‘식민사학’을 구축한 한 사람이라는 비판도<sup>10)</sup> 있어 미시나가 축적한 연구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각은 매우 복잡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논의는 미시나 연구의 일부분을 단락적으로 인용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점, 또 정작 일본인 미시나가 어째서 한국신화 및 한국 고대사 연구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연구 동기와 시각,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실제적인 내용 및 연구사적인 위치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된 바 없다는 것이 필자의 문제의식이다<sup>11)</sup>.

따라서 본고는 미시나의 연구 가운데 고대의 한일관계 관련 텍스트 즉,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를 중심으로 그가 왜 한국 고대사 연구에 천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일본은 물론 한국 학계에서도 다방면에 걸친 그의 연구 성과의 영향이 시각에 따라 상반된 평가들이 착종 혼재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구사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과연 미시나 연구의 실체는 무엇이며, 한국 고대사 연구를 시작한 동시대의 맥락 위에 미시나가 남긴 텍스트를 위치지음으로써, 미시나의 한일 고대사 연구에 어떠한 그림자가 드리웠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미시나의 한국 관련 텍스트의 성격과 실체를 조명하고, 앞서 언급한 기존의 복잡다기

9) 서영대(1983), 「韓國原始宗教研究史 小考」 『한국학보』 9권 1호

10) 최재석(1987), 「三品彰英의 韓國古代社會·神話論批判」 『민족문화연구』 20권, 이만열(2005) 「近現代 韓日關係 研究史-日本人의 韓國史研究를 중심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김화경(2005),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11) 이와 동일한 문제의식하에서 출발하여 특히 미시나 연구 중 한국신화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 연구로는 박미경(2008), 「미시나 쇼에(三品彰英)의 한국신화 연구 고찰」 (『일본학연구』 25권)이 있다.

한 미시나를 둘러싼 논의에 일정한 결론적 고찰에 도달하고자한다.

## 2. 미시나의 연구에 대한 검토와 문제의 소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한국에서의 미시나의 연구에 대한 평가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미시나의 연구에 대한 평가에 앞서 그가 왜 한국 신화 및 한국 고대사를 비롯한 한국관련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이며, 또 연구 방법론은 어떠한지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시나는 일찍이 한국문화사 연구의 일환으로 한일신화의 비교연구를 시도해 왔는데, 그 성과로서 「脱解伝説—東海竜神の信仰」(『靑丘學叢』5, 1931·『日鮮神話傳説の研究』1943), 「布都之御魂考」(『靑丘學叢10-11, 1932·『建國神話論考』1937), 「古代朝鮮における王者出現の神話と儀禮について—日鮮降臨神話の研究—」(『史林』18-1~3, 1933·『古代祭政と穀靈信仰』), 「久麻那利考」(『靑丘學叢』19~20, 1935·『建國神話論考』1937), 「首露伝説—祭儀と神話—」1935년 1월 집필, 『日鮮神話傳説の研究』1943), 「古代朝鮮の祭政と穀靈信仰について」(『史林』21, 1936·『神話と文化境域』1948), 「穀靈儀禮と神話」(『大谷學報』29-3:30-1, 1949)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1970년에서 74년 사이에 정리되어 『三品彰英論文集』(平凡社) 전6권<sup>12)</sup>으로 출간되었다. 신화 관련 연구 이외의 주요 저서에는 『朝鮮史概説』(弘文堂, 1940), 『新羅花郎の研究』(三省堂, 1943),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下卷』(吉川弘文館, 1962·天山舎, 2002), 『邪馬台國研究總攬』(創元社, 1970) 등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에서 행해진 미시나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30-40년대에 발표된 그의 연구 업적이 중심이 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 신화 관련 연구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sup>13)</sup>.

12) 각 권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日本神話論」(1권) 「建國神話の諸問題」(2권) 「神話と文化史」(3권) 「増補日鮮神話傳説の研究」(4권) 「古代祭政と穀靈信仰」(5권) 「新羅花郎の研究」(6권)

13) 최근의 관련 연구 성과만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남(2003), 「자기동일성 형성 장소로서의 신화연구-미시나 아키히데(三品彰英)의 탈해신화연구 검토-」 『인문과학(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3권, (이 논문은 『동일성 상상의 계보』(2006, 제이앤씨)에 재수록), 김화경(2005), 『한국신화의 원류』 지식산업사, 박미경(2008), 「미시나 쇼에(三品彰英)의 한국신화 연구

그러나 미시나는 1958년에 하버드 엔칭재단의 지원을 받아 <朝鮮研究会>와 <三国遺事研究会>를 만들어 『朝鮮研究年報』를 간행하였다. 이 회원들의 논문을 모아 1964년부터 『日本書紀研究』를 간행하는 등 1971년 12월 19일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주로 일본 關西 지역의 日本古代史研究者를 많이 길러냈다. 또한 1960년 5월부터는 <日本書紀研究会>를 주재하여 『日本書紀』(제1-제5冊, 塙書房, 1964-1971)의 편자가 되기도 하는 등 『日本書紀』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방대한 집필 활동을 했으며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下卷』(吉川弘文館, 1962·天山舎, 2002) 등의 관련 성과가 있다<sup>14)</sup>.

더욱이 근년 생전에 발표되었던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卷』(1962)에 이어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下卷』(2002)이 출판될 정도로 『日本書紀』 관련 연구는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그의 연구의 실체도 반드시 검토되고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최재석은 「미시나 아키히데의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비판」(『고대한일관계사비판』 경인문화사, 2010)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미시나의 다른 연구에 비해 비교적 간과되어 온 분야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평가해야 하겠지만 앞에서 지적한 그의 또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시나의 연구의 일부분을 단락적으로 인용하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으며 여전히 남겨진 과제가 많다고 하겠다. 더욱이 아래에 인용한 최재석의 말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미시나의 저서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이 그의 학문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고대사와 고대한일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의 다른 연구 텍스트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02년에 출간된 하권에 대해서는 존재조차 간과된 채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상권만이 그 비판 대상이 되어 왔다.

본인은 이미 미시나 아키히데(三品彰英)의 대표적인 저서와 몇 개 논문에 대하여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당시 숙제로 남겨두었던 그의 저서 『朝鮮史概說』(1940),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1962)에 대하여 살

고찰」 『일본학연구』 25권, 심희찬(2016), 「미시나 쇼에(三品彰英)의 신화 연구와 근대역사학-식민주의 역사학의 사상사적 재구성」 『역사문제연구』 36

14) 박미경(2008)의 앞의 논문. pp.82-83.

펴보고자 한다(同書 하권은 끝내 출간되지 않았다).

미시나가 저술한 적지 않은 저서 가운데 위 두 권의 저서에 그의 한국고대사와 고대한일관계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 저서를 제외하고는 미시나의 학문, 특히 그의 한국고대사나 고대한일관계사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두 권의 책을 보지 않은 채 그의 다른 저서나 논문만 보고는 그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sup>1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미시나의 연구 중에서는 비교적 간과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평가가 충분하지 않은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 下卷』(2002)을 포함한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 上下卷』을 대상으로 미시나의 한국고대사, 한일관계사 연구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미시나의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의 신화학, 인류학, 고대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국의 근대지식 형성에 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시나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비판은 식민주의에 복무한 일본인의 조선연구라는 기존의 ‘식민사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한국의 근대 학문의 출발과 전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사충돌(김영사, 2003)』에서 이종욱은 한국의 주류 사학계는 역사 연구에서 가장 일차적인 사료 읽기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주류 사학계의 통설을 신랄하게 공격한다. 그는 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고대사를 ‘왜곡된 역사’라고 지적하며 인류학, 고고학 등 관련 학문의 이론과 체계를 도입해 사료를 포괄적이고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역사’를 제안한다. 그런가 하면 식민사학의 고대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 이정빈은 식민주의 사학이 연구의 결과는 물론이고 일본 역사학계의 학문적 계보를 의식하면서 각 연구자의 시각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얼핏 보아’ 식민주의와 무관하다고 받아들이고 수용해 온 해석들도 다시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시도가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연구시각과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한국고대사 연구 전반을 통해 식민주의 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sup>16)</sup>.

15) 최재석(2010), 『고대한일관계사비판』 경인문화사, p.43.

16) 이정빈(2012), 「식민주의 사학의 고대사 연구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검토」 『역사적현실』 83,

이러한 지적과 같이 미시나가 비판했던 문헌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精緻)한 검증을 통해 미시나 텍스트의 실체를 밝히고 한국사의 입장에서 일본 고대사 연구와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야말로 한국학계를 지배해 온 아카데미적 헤게모니를 극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 3. 미시나 쇼에와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 3.1. 조선 연구의 출발점

교토(京都)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한 미시나는 「귀화 씨족의 연구(歸化氏族の研究)」라는 졸업논문을 시작으로 대학원에서는 「조선사 연구」라는 연구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1947년에 『朝鮮古代研究』로 교토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렇게 미시나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의 신화와 신라의 화랑제도 등을 중심으로 한 고대 한국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사 전공자인 미시나가 이처럼 고대 한국 문화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시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내가 일본사를 전공하려고 우선 처음으로 『日本書紀』를 읽었을 때 거기에는 조선관계의 기사가 너무나 많아 정치사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으로도 한국문화를 모르고서는 일본고대사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해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통감했다<sup>17)</sup>.

한국 고대 문화 연구에 관한 나의 관심은 일본 고대 연구의 입장에서이다. 한국민족은 일본민족과 가장 근친한 관계에 있으며, 때로는 그 동조(同祖)관계까지 논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다. 동조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일본 고대연구가 유력한 비교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선 가장 먼저 고대한국이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안성맞춤인 것은 한국사의 자율적 발전성이 부족한 성격으로 인해 한국문화는 특히 그 민간에서 고대성을 많이

pp.413-429.

17) 三品彰英(1972), 『三品彰英論文集 第4卷 増補日鮮神話伝説の研究』平凡社, p.453.

보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 고대문화연구의 비교 자료로 이미 일본에서 그 발전상밖에 알 수 없는 것의 원초 형상을 암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sup>18)</sup>.

즉, 미시나의 발언에서는 다분히 식민사관적인 입장도 엿보이나 그의 한국 관련 연구는 어디까지나 일본 고대를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한국의 신화를 연구하는 미시나의 연구 목적은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즉, 조선의 신화와 문화 연구라는 ‘타자 인식’을 통해 일본 사회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애초에 한국 신화나 문화 그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 간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미시나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내가 처음으로 읽은 역사서 원전은 『日本書紀』였다. 이유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부터 읽기 시작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인데 이는 교토대학 사학과에 입학했을 무렵의 일이다. <중략>

『日本書紀』를 읽는 일은 횃수를 거듭할수록 그 난해함이 더욱 깊어졌다. 그 중에서도 『日本書紀』 내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관계 기사도 난해한 부분에 속하는데 더욱이 그것이 『日本書紀』의 구성 과정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書紀』 연구는 현재 학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조선관계 기사에 한해서는 소외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동호회 동료들로부터 조선 관계 명사에 대한 독해나 기사의 신빙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받는 것도 적절한 주해서(註解書)가 없기 때문이 아닐런지. 이리하여 나는 본서의 간행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9)</sup>.

역시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은 『日本書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산물로 일본사 전공자인 미시나의 연구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앞에서 본 최재석의 말처럼 “이 저서를 제외하고는 미시나의 학문, 특히 그의 한국고대사나 고대한일관계사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18) 三品彰英(1974), 『三品彰英論文集 第6卷 新羅花郎研究』平凡社, p11.

19) 三品彰英(1962), 『日本書紀 朝鮮關係記事考証 上卷』서문에서 인용.

따라서 조선관련 연구 가운데 미시나의 조선 연구 텍스트의 핵심이자 한국 고대사 및 고대한일관계사와도 직결되는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상·하권)을 중심으로 한국 관련 연구의 내용과 실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의 구조와 ‘하권’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에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은 미시나의 다른 연구에 비해 비교적 분석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감이 적지 않은데, 그마저도 특히 2002년에 출간된 하권의 존재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아 분석에서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이 저서의 기본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저서의 기본 구성은 『日本書紀』 소재 한반도 관련 해당 기사의 <본문> 인용으로 시작하여 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校合>, <解説>, <註>, <參考>, <論考> 등으로 나누어 검토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미시나 자신의 언설은 주로 참고와 논고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日本書紀 朝鮮關係記事考證』			『日本書紀』		
상권	崇神紀	65년조	5권	崇神紀	65년조
	垂仁紀	2년조, 3년조, 90년조, 99년조	6권	垂仁紀	2년조, 3년조, 88년조(3년조의 후일담), 90년조, 99년조
			8권	仲哀紀	8년조, 9년조
	神功皇后紀	섭정전기, 5년조, 46년조, 47년조, 49년조, 50년조, 51년조, 52년조, 55년조, 56년조, 62년조, 64년조, 65년조	9권	神功皇后紀	섭정전기, 5년조, 46년조, 47년조, 49년조, 50년조, 51년조, 52년조, 55년조, 56년조, 62년조, 64년조, 65년조
	応神紀	3년조, 7년조, 8년조, 14년조, 15년조, 16년조, 20년조, 25년조, 28년조, 31년조, 37년조, 39년조, 41년조	10권	応神紀	3년조, 7년조, 8년조, 14년조, 15년조, 16년조, 20년조, 25년조, 28년조, 31년조, 37년조, 39년조,

하권	仁德紀	11년조, 12년조, 17년조, 41년조, 43년조, 53년조, 58년조	11권	仁德紀	11년조, 12년조, 17년조, 41년조, 43년조, 53년조, 58년조
	允恭紀	3년조, 42년조	13권	允恭紀	3년조, 42년조
	雄略紀	(百濟王曆), 2년조, 5년조, 6년조, 7년조, 8년조, 9년조, 10년조, 12년조, 14년조, 20년조, 21년조, 23년조	14권	雄略紀	2년조, 5년조, 6년조, 7년조, 8년조, 9년조, 11년조, 20년조, 21년조, 23년조
	淸寧紀	3년조, 4년조	15권	淸寧紀	3년조, 4년조
	顯宗紀	3년조		顯宗紀	3년조
	仁賢紀	6년조	16권	仁賢紀	6년조
	武烈紀	3년조, 4년조, 6년조, 7년조		武烈紀	3년조, 4년조, 6년조, 7년조
	繼體紀	2년조, 3년조, 6년조, 7년조, 8년조, 9년조, 10년조, 17년조, 18년조, 21년조, 22년조, 23년조, 24년조, 25년조	17권	繼體紀	2년조, 3년조, 6년조, 7년조, 8년조, 9년조, 10년조, 17년조, 18년조, 21년조, 23년조, 24년조, 25년조
	安閑紀	원년조	18권	安閑紀	원년조
	宣化紀	2년조	19권	宣化紀	2년조
欽明紀	원년 2월조, 원년 9월조 2년 여름 4월조, 2년 가을 7월조	欽明紀		원년 2월조, 원년 9월조 2년 여름 4월조, 2년 가을 7월조, 4년조, 5년조, 6년조, 7년조, 8년조, 9년조, 10년조, 11년조, 12년조, 13년조, 14년조, 15년조, 16년조, 17년조, 18년조, 21년조, 22년조, 23년조, 26년조, 31년조, 32년조	
			20권	敏達紀	원년조, 2년조, 3년조, 4년조, 6년조, 8년조, 12년조, 13년조, 14년조
			21권	崇峻紀	즉위전기, 원년조, 3년조, 4년조
			22권	推古紀	원년조, 3년조, 4년조, 5년조

	권		조, 6년조, 7년조, 8년조, 9년조, 10년조, 11년조, 13년조, 16년조, 17년조, 18년조, 19년조, 20년조, 23년조, 24년조, 26년조, 29년조, 31년조, 32년조
23	권	舒明紀	2년조, 3년조, 4년조, 7년조, 11년조
24	권	皇極紀	원년조, 2년조, 4년조
25	권	孝德紀	大化원년조, 2년조, 4년조, 5년조, 白雉원년조, 2년조, 3년조, 4년조, 5년조
26	권	齊明紀	원년조, 2년조, 4년조, 5년조, 6년조, 7년조
27	권	天智紀	즉위전기, 원년기, 2년조, 3년조, 4년조, 5년조, 6년조, 7년조, 8년조, 10년조
28	권	天武紀(상)	원년조
29	권	天武紀(하)	2년조, 3년조, 4년조, 5년조, 6년조, 7년조, 8년조, 9년조, 10년조, 11년조, 12년조, 13년조, 14년조, 朱鳥원년 9월조
30	권	持統紀	称制前紀, 원년조, 2년조, 3년조, 4년조, 5년조, 6년조, 7년조, 8년조

위의 표는 미시나의 저서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下卷)이 다루고 있는 한반도 관련 기사와 『日本書紀』 소개 한반도 관련 기사를 총망라하여 비교 제시한 것이다.

덴무(天武)의 명령에 의해 680년경에 착수되어 720년에 완성된 일본의 첫 정사(正史) 『日本書紀』는 『続日本記』, 『日本後記』, 『続日本後』, 『文德実録』, 『三代実録』 등과 함께 六国史로 일컬어지는데, 7세기 이전의 일본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는 점에서 일본고대사 연구의 핵심적인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전체 3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천지창조와 건국신화를 담

고 있는 神代부터 41대 지토(持統)에 이르는 시대의 일이 순환문의 편년체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 내용의 전거가 된 사료 및 자료에는 帝紀, 旧辭, 각 씨족에 전해지는 조상에 관한 전승이나 기록 등을 비롯한 일본측 자료와 함께 『百濟記』, 『百濟本記』, 『百濟新撰』 등 한국측 사료 및 『魏書』, 『晉書』 등 중국의 史書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위의 표를 통해 미시나가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上·下卷)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日本書紀』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한반도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저서 서장(序章)에서 미시나는 『日本書紀』 제1권 神代 상 제8단 1書 제4 및 1書 제5로 이어지는 스사노오의 신라 강림 기사야말로 “한일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장 오래된 전설”이자, “정치적 의미에서도 중요시되어 온 전승”으로 “역사학적 입장에서 논할 만한 점이 적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한일관계 기사를 정면적으로 ‘고증’하는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자신은 이 전승에 대해서는 “신화학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전설 요소가 스사노오의 큰뱀 퇴치 이야기와 결합된 것은 가장 후기적인 변형”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미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승은 『日本書紀』 편찬자가 일본 국가 역사상 한일관계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편찬자에 의해 책상 위에서 사사로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한일 교섭에 관련되는 사실을 토대로 한 전승들 가운데 선택된 것<sup>20)</sup>이라고도 덧붙이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神代の 전승 사료가 민족적으로나 생활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공통성을 가지는 한일 두 민족의 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검토할 만한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과제를 거기까지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천명<sup>21)</sup>한 후 崇神紀의 任那 기사부터 검토하고 있다. 이후 상권에서는 應神紀(제10권)까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하권에서는 仁德紀(제11권)부터 欽明紀(제19권) 2년 가을 7월조까지의 기사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 3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日本書紀』 중 미시나의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에서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神代 이후 약 15대에 걸친 시대의 한반도 관련 기사인 것이다. 미시나가 이들 천황의 재위 시기의 한반도 관련 기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0) 三品彰英의 위의 책(1962) p.1.

21) 三品彰英의 위의 책(1962) p.3.

최재석은 미시나가 “崇神紀·垂仁紀·神功紀·応神紀 4왕대의 기록만을 대상으로 삼았<sup>22)</sup>”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崇神紀(65年条)와 垂仁紀를 문제삼은 것은 이른바 ‘任那經營’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고 神功紀와 応神紀를 문제삼은 것은 고대한국이 일본(倭)에 예속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요컨대 미시나는 ‘考證’이라는 이름하에서 시종 그의 역사관(‘天皇史觀’)만을 피력한 것이다<sup>23)</sup>.

그러나 미시나의 연구에 결과적으로 설령 최재석의 지적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고 할지언정 적어도 “崇神紀·垂仁紀·神功紀·応神紀 4왕대의 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는 본서를 하권까지 시야에 넣어 살펴보면 명약 관화하다. 오히려 위에서 제시한 미시나의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의 내용을 『日本書紀』 소재 한반도 관련 기사 내용과 비교해 보면 특정 시기의 기사만을 선별하여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기 보다 神代 이후의 역대 천황의 재위기에 보이는 한반도 관련 기사를 『日本書紀』에 기술되어 있는 순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서의 저변에 있는 ‘정치적 의도’를 전제한 최재석의 해석은 본서의 하권은 간과한 채 상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하겠다.

#### 4. 미시나의 텍스트와 ‘고증’의 의미

미시나는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에서 근대 실증주의 사학의 영향으로 문헌고증에 입각하여 『日本書紀』에 대한 사료 비판을 시도하여 ‘伝説’과 ‘史実’로 분리하였는데 이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日本書紀』 한국 관계 기사는 크게 임나가 멸망하는 欽明紀 23년조를 중심으로 그 이전은 임나의 성립과 경영에 관한 부분, 이후는 임나 멸망 후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임나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武烈紀에서 敏達紀까지의 기사는 그 이전의 임나의 성립 과정과 초기의 경

22) 최재석 위의 책(2010), p.53.

23) 최재석 위의 책(2010), pp.53-54.

영기사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sup>24</sup>). 즉, 崇神紀에서 仁賢紀까지는 神功紀 49년조 및 62년조, 顯宗紀 3년조 등 왜가 한반도 남부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계기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sup>25</sup>). 또한 崇峻紀에서 孝德紀 大化 3년조까지는 임나 부흥 노력과 임나 문제가 마무리되어 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이후 天智紀 2년조까지는 백촌강 싸움에 이르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으며, 백촌강 싸움 이후에는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여 당과 신라, 일본이라는 동아시아 세계의 원형이 형성되는 기틀이 마련되는 등, 崇峻紀에서 마지막 持統紀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말까지로 요동치는 대륙의 정세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정책도 변화를 거듭하던 시기였다<sup>26</sup>).

이러한 『日本書紀』 한국 관계 기사 중에서 미시나는 그러니까 대외관계의 기원으로 임나를 최초의 조공국으로 전하는 崇神紀 65년조부터 欽明紀 2년 가을 7월조까지의 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미시나가 어째서 欽明紀 2년 가을 7월조를 끝으로 『日本書紀』 소재 한국 관계 기사 검토를 마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다. 어쩌면 최재석의 말처럼 미시나가 ‘고증’이라는 이름을 빌어 ‘그의 역사관(‘天皇史觀’)을 피력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서의 마지막부에 적혀 있는 작성 일자 “1971년 8월”로 되어 있다. 그가 1971년 12월에 사망한 것을 고려하면 이 저술 활동이 거의 그의 최후까지 계속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일본사 이해를 목적으로 한국고대사와 한국문화 연구에 주력했던 미시나의 연구는 이른바 왜의 한반도 경영의 핵심을 이루는 시기에서 멈춰 임나 부흥을 모색하는 부분까지 고찰이 이어졌다. 그가 순차적으로 『日本書紀』 소재 한반도 관련 기사를 검토해 나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한반도 관련 기사에 주목함으로써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미시나가 유일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仲哀紀 8년 가을 9월조 기사이다.

군신을 불러 구마소 정벌에 대해 의논하게 하였다. 이 때 신이 황후에 신탁하여 말하기를, “천황은 어째서 구마소가 복종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가. 그곳

24)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2003),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I)』 일지사, p.3.

25)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2002),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 일지사, p.3.

26)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2004),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II)』 일지사, pp.3-4.

은 메마른 불모의 땅이다. 거병하여 토벌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보다도 훌륭한 보물이 있는 나라, 말하자면 처녀의 눈썹과 같으며 대안(對岸)에 있는 나라이다. 그 나라에는 눈이 부신 금은과形形色색의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하다. 이 나라를 新羅國이라고 한다. 만일 내게 제사를 지내면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나라는 틀림없이 저절로 복종할 것이다. 또한 구마소도 복종할 것이다. <후략>”라고 하였다.

위의 인용은 신라가 항복하면 구마소도 자연히 평정된다는 신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구마소를 공격한 탓에 죽게 되는 仲哀를 대신하여 결국 神功황후가 신라 정벌에 나서는 계기가 되는 신탁 장면이다. 메마른 불모의 땅으로 표현되고 있는 구마소에 비해 신라는 금은과 보물이 넘쳐나는 財寶國으로 서술되고 있다. 여기서 재보국은 선진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시나가 한일관계를 이야기 하는 가장 오래된 전설로 꼽으면서도 신화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이라고 선을 그으며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의 분석에서는 제외한 『日本書紀』 제1권 神代 상 제8단 1책 제5에도 “한반도(韓鄉)는 금과 은이 있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묘사와 함께 新羅가 『日本書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仲哀紀 8년 가을 9월 조의 기사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주목된다. 어쩌면 여기에는 그가 말하는 ‘伝説’로 치부하고 싶었던 ‘史實’이 있는 것은 아닐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시나는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에서 근대 실증주의 사학의 영향으로 문헌고증에 입각하여 『日本書紀』에 대한 사료 비판을 가하여 ‘伝説’과 ‘史實’을 분리하였다. 그는 『日本書紀』의 대외 관계 기사를 해석하고 또한 자료로 이용함에 있어서 먼저 빼놓을 수 없는 조건으로 사료의 계통을 분석하고 각각의 성질에 따라 사료 가치를 판정해야 한다<sup>27)</sup>고 주장한다. 미시나가 이와 같은 고증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日本書紀』에 혼재해 있는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분리하고자 한 점은 평가할만하다고 하겠다. 다만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을 검토해 보면 그가 말하는 사료에 대한 ‘伝説’과 ‘史實’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매우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7) 三品彰英의 위의 책(1962), p.57.

①神功紀를 通覽하다 보면 또 하나의 특색으로 거기에 전설적인 기사와 사실적인 기사가 결합되어 있어 이른바 전설과 역사의 접점을 感得할 수 있다. 이 접점은 일본서기 전체에 통용되는 伝説과 史實의 접점이기도 하면서 神功 外政이야기를 분기점으로 그 이전을 전설 시대, 이후를 역사 시대(그대러가 역사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 고증이 가능한 시대)로 대략적으로 이분할 수 있다. 전자의 부분을 史實로서 일일이 고증한다면 오늘날의 사학계가 수용해 주지 않겠지만 한편 후자의 부분, 특히 한일관계 기사에까지 모두 허구, 조작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들여오는 것은 비판 과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전설과 역사의 접점으로서의 신공기의 특색은 書紀 紀年상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신공기 46년 丙寅 이하의 조선 관계 기사는 干支 2甲, 즉 120년을 정정함으로써 史實的으로 고증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sup>28)</sup>

②신공황후와 오진의 出征과 出生 이야기가 그와 같이(신공황후는 바다의 여신적 측면, 오진은 海童적 존재를 신화적으로 표현한 전승으로-역자주)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이 양자의 역사적 존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종류의 전설은 고대적인 theory에 의해 설명된 표현으로, 우리들의 먼 조상들은 이와 같은 전승의 배후에 역사적으로 위대한 황후와 천황의 실재(實在)와 그 업적을 감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승이나 사료를 취급할 때 theory와 사실, 표현과 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히 주의해 두고 싶다. <중략> 또한 여성이 해외 원정군을 지휘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른 시기의 문화 사회에서는 희귀한 일이 아니었으며 그와 같은 예증도 적지 않다<sup>29)</sup>.

③上代史는 역사적 사실을 신화의 관념을 통해 표현하고, 또 때로는 관념적 현상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融即性を 그 특색으로 하고 있다<sup>30)</sup>.

④<전략>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 書紀의 年次라는 틀에서 떼어내어 전설 그 자체가 가지는 史實性을 고찰해 보자<sup>31)</sup>.

28) 三品彰英의 위의 책(1962), pp.55-56.

29)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上卷』(吉川弘文館 1962), p.58.

30)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上卷』(吉川弘文館 1962), p.71.

31)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上卷』(吉川弘文館 1962), p.89.

⑤ 전설의 주인공인 인물은 實在者에서 유래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한 가공의 경우도 있는데, <중략> 신공황후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논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자 즉 實在的이라고 생각해도 결코 비과학적이 아니다<sup>32)</sup>.

예를 들어 위의 인용은 미시나가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경영론의 출발점이 되는 사료로 이른바 임나일본부론의 근간을 이루어 온 神功紀 및 應神紀의 한반도 관련 기사를 분석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전설’과 ‘사실’이다. 미시나는 이 시기의 대부분이 조선 관계 기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에 주목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서 유독 ‘전설’과 ‘사실’에 대한 언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사료의 가치 판단의 근거는 의외로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무엇을 ‘전설’ 혹은 ‘사실’로 보아야 할지 그 기준은 분명하지 않은 듯하다. 또한 저서의 곳곳에서 『日本書紀』 편찬자의 윤색, 조작, 가필 등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는 한편 “모든 것을 조작이라고 보는 견해는 모든 것을 史實로 보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경솔하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sup>33)</sup>”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역시나 윤색과 조작, 가필로 판정하는 그의 근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은 ‘考證’이라는 미명 하에 일견 미시나가 『日本書紀』의 사료적 가치를 실증주의 사학에 입각하여 매우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듯도 하다. 하지만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그가 『日本書紀』의 사료 중에서 허구와 사실을 구별해 내는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과연 ‘고증’으로 검증한 ‘고대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 둔다. 이와 관련하여 미시나의 실증주의 사학의 실체에 대해서 향후 전체 논저를 대상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5. 나가기

『日本書紀』에는 한국측 사료의 인용과 함께 한국 관계 기사가 많이 기록되

3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卷』(吉川弘文館 1962), p.94.

33)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卷』(吉川弘文館 1962), p.211.

어 있는데 특히 가야와 관련된 기록은 국내에 남아 있는 어느 문헌보다 많은 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한국측 문헌자료가 부재한 현재 상황에서 『日本書紀』에 실린 한반도 관계 기사를 비롯하여 『日本書紀』는 고대한일관계사 연구에 있어서 한국고대사나 당시의 한일관계사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계에서는 민족주의 사학자의 연구를 계승하여 『日本書紀』를 위서로 간주하여 외면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다가 이흥직, 정중환, 천관우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한국학계에서도 사료로서의 『日本書紀』를 적극 수용하게 되었다<sup>34)</sup>. 이 과정에서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日本書紀』에 대한 사료 비판을 가했으며 <백제삼서>를 객관적 사료로 간주하고 있다는 이유 등에서 미시나의 연구는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계의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35)</sup>.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시나의 학문의 출발점, 미시나가 저작 텍스트에 내포한 한계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근년의 한일 양국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日本書紀』 한반도 관계 기사를 역사적 사실과 『日本書紀』에 내재된 관념적 표현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sup>36)</sup>.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는 고대 율령제에 입각하여 편찬된 『日本書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대 천황제적 관념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난해하기 때문에 『日本書紀』 소재 기사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 기사들이 사실이나 아니냐라는 사실 여부보다도 『日本書紀』의 편찬자들이 어떤 구상 하에 어떤 이유에서 무슨 자료를 근거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문헌으로 탄생시키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시나 스스로도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에서 『日本書紀』의 특색은 “사실적인 문제보다도 書紀 편찬상의 문제를 시사하는 것<sup>37)</sup>”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나를 비롯한 종래의 연구는 여전히 “『日本書紀』 편찬상의 문제” 보다는 “사실

34) 이연심(2015), 「한일 양국의 ‘임나일본부’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 추이」 『한국민족문화』 57, pp.130-132.

35) 이연심 위의 논문 p.128.

36) 이연심 위의 논문 p.133.

37)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証上卷』(吉川弘文館 1962), p.55.

적인 문제”에 더 많이 주목해 온 감이 없지 않다. 종래의 연구사가 『日本書紀』 구상의 문제를 간과한 채 지나치게 이 한국 관련 기사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만 집중하여 이들을 역사적 고증의 대상으로만 취급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때 새로운 출구가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영남(2003) 「자기동일성 형성 장소로서의 신화연구-미시나 아키히데(三品彰英)의 탈해신화연구 검토-」 『인문과학(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3권, pp.123-141.
- 김화경(2005) 『한국신화의 원류』 지식산업사, pp.11-248.
-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2002)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Ⅰ)』 일지사, pp.3-319.
-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2003)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Ⅱ)』 일지사, pp.3-375.
-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2004)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pp.3-395.
- 박미경(2008) 「미시나 쇼에(三品彰英)의 한국신화 연구 고찰」 『일본학연구』 25, pp.79-99.
- 서영대(1983) 「韓國原始宗教研究史 小考」 『한국학보』 9권 1호, pp.155-192.
- 심희찬(2016) 「미시나 쇼에(三品彰英)의 신화 연구와 근대역사학-식민주의 역사학의 사상사적 재구성」 『역사문제연구』 36, pp.257-299.
- 이만열(2005) 「近現代 韓日關係 研究史-日本人의 韓國史研究를 중심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pp.17-63.
- 이연심(2015) 「한일 양국의 ‘임나일본부’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 추이」 『한국민족문화』 57, pp.127-128 (DOI:http://dx.doi.org/10.15299/jk.2015.11.57.117)
- 이정빈(2012) 「식민주의 사학의 고대사 연구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검토」 『역사적현실』 83, pp.413-429.
- 최재석(1987) 「三品彰英의 韓國古代社會·神話論批判」 『민족문화연구』 20권, pp.37-115.
- 최재석(2010) 『고대한일관계사비판』 경인문화사, pp.1-213.
- 최혜주(2005)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권, pp.468-513.
- 三品彰英(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卷』 吉川弘文館, pp.1-271.
- 三品彰英(200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下卷』 天山舎, pp.1-299.

논문 투고 일자 : 2019. 03. 31.
논문 심사 일자 : 2019. 05.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05. 07.

## ＜要旨＞

## 三品彰英の『日本書紀朝鮮関係記事考証』に関する一考察

朴美京

本論文は三品彰英の研究の中でも三品研究の核心であり、韓国古代史及び古代日韓関係史にも繋がる『日本書紀朝鮮関係記事考証』（上・下）を中心に考察し、三品の韓国関連研究の実像に迫ろうとし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三品の『日本書紀朝鮮関係記事考証』は一見、三品が『日本書紀』の資料的価値を実証主義史学に基づき、客観的に批判的な見方を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が、実際は『日本書紀』の資料を「操作」と「史実」に見分ける三品の判断基準は必ずしも明確ではなく、彼の言う「操作」と「史実」の取り扱いには慎重かつ綿密な検討が先行すべき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また、従来の研究が『日本書紀』所在の韓国関連記事をその「編纂上の問題」と見るより、「史実的な問題」と見做してきた面があることを指摘した。

## A Study on Mishina Shoei's "Nihonshoki Chousen Kankei Kiji Koshou"

Park, Mi-Kyo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Mishina Shoei's "Research about the related to Chousen in Nihonshoki." The core idea of his research connects Korean ancient history and the ancient history of Korea-Japan relations.

At the conclusion, the thesis states that additional researches should be conducted. This is because, even though Mishina's "Research about the record related Chousen in Nihonshoki" appears to suggest that his observations on "Nihonshyoki" are objective and analytical, there is an ambiguity behind Mishina's standard of judgment within the context of "Nihonshoki" as it is impossible to identify whether it is fabrication or historical fact.

Additionally, the thesis indicates that the conventional research commentaries on Korean articles regarding "Nihonshyoki" highlight the issue of authenticity in historical facts instead of errors made in the compilation process.